

발신: 14대 총여학생회, 2002 새터 반성폭력 내규 기획단

수신: 새내기 맞이에 분주한 여러분들

여학우에게 친화적인 새터문화 만들기 - 안티 마초맨 운동을 제안합니다!

또다시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자신의 생활공간이 될 대학이라는 곳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들어오는 새내기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내기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대학문화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성원 모두를 배려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새내기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과연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인가. 특히 사회적인 성별 위계의 체계 안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여성 - 여학우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배제시키는 내용들은 아닌가. 이는 2002년 새로운 성원들을 연세사회 내에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로서 행해지는 성폭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대학문화 전반의 문제에서부터 기원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부장적 이성애제도가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로부터, 대학이라는 공간 또한 자유로울 수 없죠. 이로 인해 암묵적인 동의 하에 다수가 원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아무도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학우들에게 배타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문화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전수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를 진정 원한다면, 계속되는 성폭력의 발생을 막아내고 남녀차별적 문화를 바꿔내고자 한다면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부터 이러한 흐름들을 끊어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02년 안티 마초맨 운동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생각 없이 불려지는 응원이지만 그 안에는 강한 남성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여성들을 배제시키는, 남성 중심의 공간으로서 연세를 재규정하는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초맨이라는 단어 자체에 담겨 있는 남성성에 대한 동경에 주목한다면, 이는 응원의 형태로 불려지는 새로운 정력가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학우에게 친화적인 새로운 새터문화, 새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나갑시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서, 안티 마초맨 운동을 각각의 과반, 단대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새내기들과 함께하는 OT, 새터 기획의 자리에서부터 이에 대한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실천해낼 수 있다면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오명을 벗어난, 진정 남녀 평등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학 사회내의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데에는 큰 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 재미라는 이름으로, 고민 없음을 덮어두려하지 맙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2002년부터 시작합니다.